

# 되찾은 아들 2

렘브란트는 일생의 대부분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천착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까지도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방탕한 모습의 자신의 초상(그림:선술집의 탕자, 방탕했던 젊은 시절에 자신과 아내 사스키아) 혹은 거지들, 돼지치기의 그림 등 모든 작품의 과정을 자신의 현실적 신앙생활로 비추었다. 낭비벽이 심했던 시절에도 그는 이 비유를 인용했다.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비유에 유난히 관심을 갖고 작품의 주제로 택한 렘브란트의 신앙관이 그의 모든 작품세계를 통해 나타난다. 가톨릭 개신교 신학자들간에도 이 비유의 해석은 분분하다. 물론 이 비유로만은 아니지만 부패했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 해석 차이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은총론에 기반한 개신교와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한 가톨릭 교리와의 차이는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언제나 당대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렘브란트도 화가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의 세속적 인생의 곡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서양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그의 선지적 발자국은 그의 후배 화가들에 의해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교간의 어지러운 신앙교리 논쟁에서도 그의 신앙관은 양자를 다 아울렀다.



Rembrandt 1635 작, The Prodigal Son in the Tavern, 캔버스에 유채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 독일 드레스덴

이 작품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결말만을 보여준다. 이 결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확인된다. 이 은총론은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습작과 연구 등등 그의 부단한 노력은 이 결말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돌아온 아들은 돌아오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며 지난날을 후회한다. 잘못을 알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다. 그는 충분한 보속을 거친다. 돼지 먹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조건이 없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톨릭은 응시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선결 과제'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비유의 제목(지난호 그림)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 '되찾은 아들'이란 것은 탁월하다. 그가 방탕했던 아들을 중요한 위치로 본게 아니라 정면에 서게한 아버지의 좌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 것은 당연하다. 렘브란트도 아버지의 조건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서 엄청난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위안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탄과 회개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느님의 바램은 무엇일까? 자신의 자식들인 형제(인간)들의 평화일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을 할 수 없이 받는다는 인간의 뻔뻔스런 고뇌를 꿰뚫어 보신 때문일까? 그것은 흑역사의 세월 동안 자신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업보(?)는 아닐런지?

지구상 아니 우주 최고의 생태 교란종인 인류의 행태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꽤 되었다.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내려다보시는 하느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요즘 죄많은 인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회의 실상은 하느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결국 이렇게 우리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걱정해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를 렘브란트는 수심깊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미리 비유의 결말 이후를 예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흑역사는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집안이나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흑역사가 존재하니 어찌랴?

인생사에서 온탕 냉탕을 오고간 렘브란트는 말년에 이르러 실생활과 신앙생활이 어긋나면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작품을 남김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는 인생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잘못에 대해 충분한 보속을 이루었음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도 이 작품 앞에 서서 '아들을 되찾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후결 과제'인 응답을 할 차례만 남았다.

글/김웅배 안드레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3년  
06월 11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최후의 만찬〉 후안 데 후안데스, 1560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신명기8,2-3,14ㄴ-16ㄱ
- #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ㄴㄷ(© 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16-17
- # 부속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야와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요한 복음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 성가번호 입당 169 봉헌 217 성체 162 파견 201

## 성당 소식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 유귀득(마리아) - 가족
- 최복자(레지나) - 이 이레네

###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박화성(헬레나)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사목회, 변태용(요셉) 가족, 울드브릿지 구역, 노스브런스워 구역, 요셉회, CLC가도너, 자모회, 김순옥(올리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뜨거운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김영필(안토니오)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오용덕(헨리코)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박화성(헬레나)
- 김정숙 목사님 - 최현지(안토니아), 노스에디슨 구역
- 김순옥(올리아) 생일 축하 - 황태진(필립보) 가족
- 문마린(마리아) - 최정원(레지나)
- 주일학교 선생님 - 자모회
- 주일학교, 유스그룹 학생들 - 자모회
- 김수완(세실리아) 선생님 - 송진영(마리스텔라)
- 정수지(아네스) 선생님 - 주일학교
- 한 가브리엘 첫영성체 축하 - 주일학교, 썸머셋 구역, 소나영(안나), 이서형(요안나), 최정원(레지나), 나채국(제노), 김동근(사도요한)
- 김태오(테오도르) 첫영성체 축하 - 주일학교, 썸머셋 구역, 소나영(안나), 이서형(요안나), 최정원(레지나), 나채국(제노), 김동근(사도요한)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22명).....	\$1,357
• 교무금 .....	\$1,990
오용운(3-6)      최영옥(6)      김광태(1-6)	
임문수(6)      박락준(6)      우영인(5-6)	
서정근(5-6)      김영숙(5-6)      이광재(6)	

###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5/26까지 약정 금액은 \$38,759.14 (104.75%)입니다. 목표액 \$37,000에서 \$1,759.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성당 친교실 주방 위생 점검

### 🌸 2차 헌금

- 6월 11일: 유틸리티

### 🌸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자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첫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7/2 노스브런스워 8/6 럽거스

### 🌸 매일미사책 1년 구독 신청 (2023년 8월 - 2024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90불 / 대형 매일미사 120불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구독 비용을 봉투에 넣으셔서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사제관 메일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 7월 2일(주일)
- 문의: 사무장 732-258-5998

### 🌸 6월 18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중 Gabriel Han, Teo Kim, Chelsea Curtis, Lainey Labanich, Krysten Trinidad 5명의 어린이들의 첫영성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읽어 드립니다.

- 주제: 예비자 교리서 이어서.
- 일시: 6월 13일(화) 저녁 8시 30분
- 줌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 Passcode: 1111



### 🌸 금주의 평일미사

- 일시 및 장소: 6/15 (목) 오전 11시 경당

###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이스트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 🌸 울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노스에디슨 구역모임

- 일시: 6월 18일(주일) 미사 후 1시
- 장소: 이광호(베드로) 형제님 댁 54 Preston St. Edison, NJ 08817

### 🌸 사무실 하계 휴가

- 6/23 - 7/9 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장에게 전달하실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지향 신청 예물등은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지사항

-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금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후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친교실의 단상을 원래의 보관 위치로 이동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씀 반전례

### 🌸 제1독서: 신명기8,2-3.14ㄴ-16ㄱ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10,16-17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요한 복음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묵상도움글

강용 임마누엘 신부

흔히 세상에서는 ‘먹고 먹힌다.’는 표현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슬로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우리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먹히고자 하는 모습을 자처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에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지만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먹는 살아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주님께서서는 우리보다 더욱 앞서신 분이시고, 더욱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주님은 그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히는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먹힌다는 것’. 세상은 그것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평가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먹히는 삶은 큰 사랑을 위한 주님의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서 나 자신은 얼마나 먹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여유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단정지어버린다면 우리들은 미사 안에서 아무리 성체를 받아 모셔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가 지녀야 하는 마음은 성체성사는 단순히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체성사를 ‘사는’ 마음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빵과 피가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준다면, 나 자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그 삶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많은 이들의 희망과 행복으로 바뀌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체가 또 다른 주님의 몸과 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도움이 되었던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복음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